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7.24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##### ○ 英, ISIS 가입 여성 입국 허용

- 7.16 英 법원은 지난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'ISIS 新婦' 「샤미마 베굼(20)」의 입국을 허가하였는데, 공정과 정의가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고 발표

\* '15년 ISIS에 가입하기 위해 시리아로 출국, '19년 英 귀국의사 표명

##### ○ 獨, 테러 예방을 위한 영장 없는 정보수집 '위헌' 결정

- 7.20 독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범죄 및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 없이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, "시민의 사생활 보호법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일"이라며 위헌 결정

\* 현재 독일은 이름·주소·생년월일·IP주소 등을 통신사·병원·호텔 등에 요청하여 영장 없이 열람 가능

##### ○ 英, 레딩공원 흉기난동 사건 '테러'로 판정

- 7.21 英 경찰은 지난 6월 남부 레딩市의 한 공원에서 불상의 남자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(사망 3, 부상 3)을 테러로 간주한다고 발표

\* 대테러경찰은 리비아 망명자 「카일리 사달라」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

#### 미주

##### ○ 美, 갱단(MS-13)에 테러 혐의 최초 적용

- 7.15 美 법무부는 폭력조직 'MS-13'의 조직원을 기소하면서 처음으로 테러혐의\*를 적용하였다고 발표, 현지언론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MS-13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점에 주목하여 테러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

\* △테러범에 대한 물적지원, △국경을 넘나드는 테러행위 공모, △테러자금 지원 등

## 아 · 태평양

- 외교부, 이라크 등 ‘여행금지국가’ 지정 6개월 연장
  - 7.16 외교부는 테러 위험·정세 불안·치안 여건 등을 고려해 이라크·시리아·리비아·아프간·소말리아·예멘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(잠보앙가 반도, 술루·바실란·타위타위 군도)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.31까지 연장한다고 발표
- UN, 파키스탄 탈레반(TTP)\* 지도자 ‘글로벌 테러리스트’ 지정
  - 7.18 UN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ISIS·알카에다와 연계, 파키스탄內 각종 테러에 관여해온 파키스탄 탈레반의 지도자 「무프티 누르 왈리 메수드」\*를 국제 테러범\*\*으로 지정했다고 발표
  - \* '18.6월 TTP 지도자로 선출, 美 재무부는 '19.9월 글로벌 테러분자(SDGT)로 지정
  - \*\* '20.3월 현재 UN 지정 국제 테러범은 395명(ISIS·알카에다 연계 260, 탈레반 연계 135명)
- 인도네시아, 제마 이슬라미야(JI)\* 지도부 징역형 선고
  - 7.21 인니 법원은 발리 폭탄테러('02.10월 / 사망 202)의 배후로 알려진 제마 이슬라미야의 최고지도자 「위자얀토」와 고위간부 「트리카르얀토」에 대해 테러 혐의로 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 6월을 선고
  - \* 동남아 이슬람 통합국가 건설을 목표로 조직('93) / 테러단체 지정 : UN, 美, 캐나다

## 중 동

- 이란, 美·이스라엘에 「카셈 솔레이마니」 정보 제공자 사형 집행
  - 7.20 현지언론은 美軍 드론 공격으로 사망('20.1.3)한 「카셈 솔레이마니」 쿠드스軍 최고사령관의 동선 정보를 美 CIA와 이스라엘 Mossad에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「마무드 무사비 마즈드」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

파키스탄 펀자브주 자살 폭탄테러

- '17.7.24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市 외곽 코트 라크파트 야채시장에서 경찰을 겨냥한 자폭테러 발생
  - 당시 경찰은 시장內 불법 노점을 철거하고 있었는데, 테러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에게 돌진하여 자폭
  - 인파가 붐비는 오후 4시 시장 한복판에서 폭발물이 터져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(사상자 71명)하고, 경찰관도 9명 사망



- 同 사건 직후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이 자폭테러 배후를 자처했으며, 파키스탄 경찰도 同 무장단체를 배후로 지목
  - \* 파키스탄 경찰, “폭발 현장 인근에 주요 정보기술 회사 직원들도 있었으나, 파키스탄 탈레반이 경찰관들을 주요 공격 목표로 노린 것이 확실하다”고 발표
- 펀자브주 「사나울라」 내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“어떤 공격에도 파키스탄은 무너지지 않을 것”이라며 파키스탄 탈레반의 공격을 규탄

< 자살 폭탄테러 >

- 흔히 자살폭탄 테러를 이슬람의 전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, 역사상 기원은 13세기 십자군 전쟁時 성전기사단의 군함 자폭공격이며, 근대에 자행된 자살폭탄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美군함 등을 전투기로 돌진해 폭발시킨 일본의 가미카제가 원조
- 이슬람 무장세력은 허리에 두르는 ‘폭탄벨트’나 상반신에 착용한 ‘폭탄조끼’를 사용했으나, 점차 검문검색이 심화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테러로 변화
- 뉴욕타임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폭공격을 ‘최대의 헌신’으로 여기고 있으며, 순교 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자살폭탄 테러를 양산한다고 분석
  - 실제 이슬람 하디스(무함마드의 언행 전승집)에 따르면, 알라를 위해 지하드를 수행하다 순교한 사람은 ①실행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, ②천국에 가게되며, ③ 더 큰 위협에서 보호받고, ④훌륭한 루비 왕관을 머리에 씌와 동시에, ⑤72명의 처녀와 결혼하며, ⑥친척 70명의 중보자(神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)가 된다고 명시